



踏雪野中去
不須胡亂行
今日我行跡
遂作後人程

당신이 걷는 걸음이
새로운 불교를 위한
다음 세대의 나침반입니다

삼보신앙 정립과
순례문화 활성화를 위해
함께 걷겠습니다.

현대불교신문사 임직원 일동